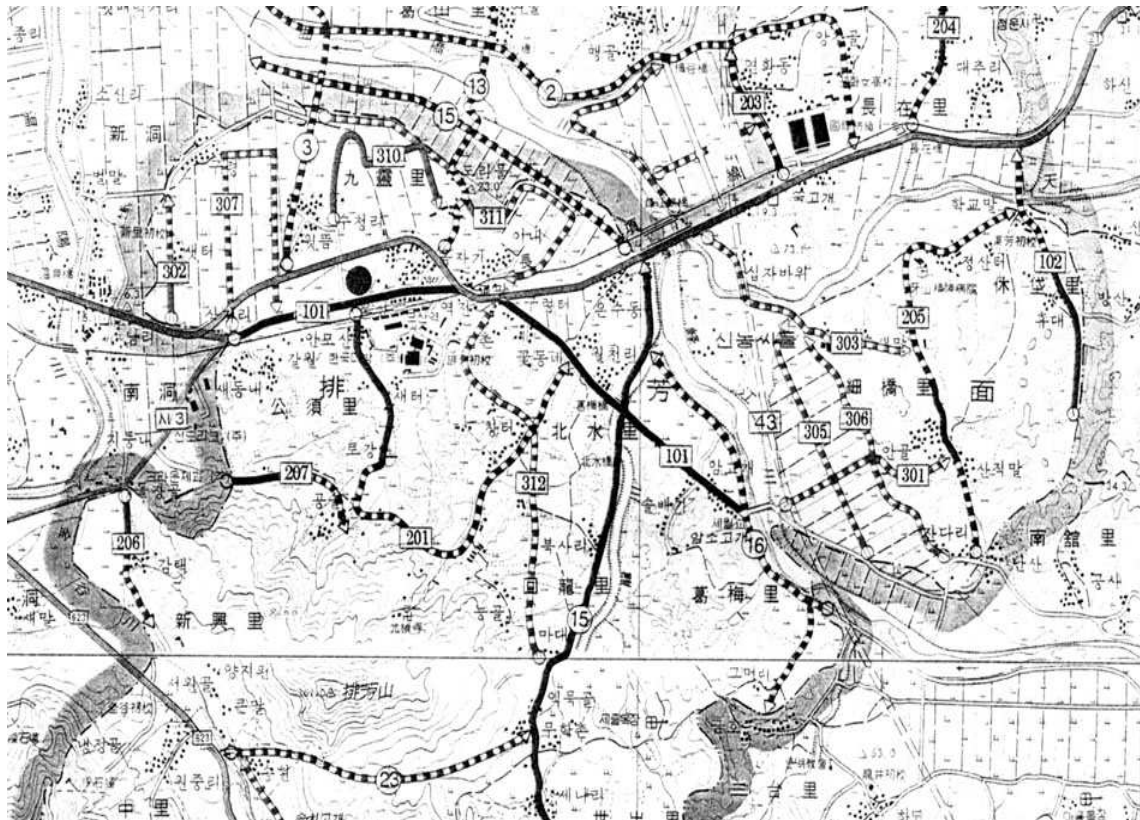


## 회룡리·回龍里

회룡리는 온양군 동상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회룡고조로 되어 있어서 회룡리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탑리 오리 무학리 세출리의 각 마을을 병합하여 회룡리라 정하여 아산군 배방면에 편입되었다. 회룡리는 1리와 2리로 나뉘는데 1리는 양목골, 무학촌, 2리는 마대, 먹읍실, 탑골, 능골로 구성되어 있다. 회룡리의 총인구는 572명으로 총 226가구 중 82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회룡리 위치도>



☒ 양목골, 무학촌, 마대, 먹읍실, 탑골, 능골마을

### ◆회룡 1리

전설에 따라 하늘나라의 용이 다시 돌아온 마을이라 해서 회룡리라 부르게 되었다.

양목골 마을은 조선시대 약수터가 있었다는 곳으로 '양목골'이라 칭하고 있다.

용천(龍泉) :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후 눈병이 발생하여 치료차 온양으로 오던중 약 천후로 이곳 용천으로 잘못 행차하시자 이곳에 살던 황룡이 사람으로 환생 온양으로 인도 하였다고한다. 이곳 용천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계율을 어김으로 인하여 온양읍 용화리에 살다가 다시 용으로 승천하여 돌아갔다고 하여 회룡리라 하였고 지금도 안용샘, 건거용샘은 기이하리 만큼 찬물이 잘 나온다고 한다.(양목골 서남쪽에 백조 아파트 2개동이 424세대가 1998년에 건축되어 회룡1리에 속한다.)

### ◆회룡 2리

탑골은 배방면 회룡리 북방에 위치한 마을로서 약 500년 전부터 당시 왕손이 세속을 떠나 조그맣게 절을 짓고 수행하였다 하며 그 후 절의 흔적은 없고 탑 만 보존되어 있는 마을이라 탑골이라 하였고 그 옆에는 왕손이 죽은후 옆에 모셨다고 하여 '능골'이라 칭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회룡1리에서 분구된 마을이다. 이밖에도 마대마을은 머집실 아래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말을 먹이던 터라 붙여진 이름이다.

<조사당시 회룡리 마을 관련사진>



1) 위 치

회룡리는 면소재지에서 동남쪽으로 약 2.5km쯤 떨어져 있으며 배방산 동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머겁실은 회룡리 북쪽에 있다. 머겁실을 기준으로 능골과 마대 그리고 탑골을 구분 할 수 있다. 15번 도로로 북사리를 지나 세출리 가기전의 마을이다.

2) 현 황

회룡리의 인구분포현황을 보면 1리는 369명, 2리는 203명으로 1리인 양목골, 무학촌마을이 인구가 많다. 생업에서도 7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2리는 32%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 인구분포 현황

| 구분<br>마을명          | 계    | 남자   | 여자   |
|--------------------|------|------|------|
| 1리 양목골, 무학촌        | 369명 | 211명 | 158명 |
| 2리 마대, 먹읍실, 탑골, 능골 | 203명 | 104명 | 99명  |

- 생업

| 구분<br>마을명          | 계   | 농업  | 기타   |
|--------------------|-----|-----|------|
| 1리 양목골, 무학촌        | 71% | 29% | 100% |
| 2리 마대, 먹읍실, 탑골, 능골 | 32% | 68% | 100% |

농경지 현황에서는 1리는 44ha, 2리는 46ha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논과 밭의 분포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 농경지 현황

| 구분<br>마을명          | 계    | 논    | 밭    |
|--------------------|------|------|------|
| 1리 양목골, 무학촌        | 44ha | 25ha | 19ha |
| 2리 마대, 먹읍실, 탑골, 능골 | 46ha | 26ha | 20ha |

－ 농기계 보유현황

| 구분<br>마을명          | 경운기 | 트랙터 | 양수기 | 분무기 | 관리기 | 이앙기 |
|--------------------|-----|-----|-----|-----|-----|-----|
| 1리 양목골, 무학촌        | 30  | 10  | 30  | 22  | 5   | 7   |
| 2리 마대, 먹읍실, 탑골, 능골 | 17  | 7   |     | 14  | 9   | 6   |

－ 문화시설

| 구분<br>마을명          | 마을회관 | 앰프 | 사물놀이악기 | 방송시설 |
|--------------------|------|----|--------|------|
| 1리 양목골, 무학촌        | 1    | 1  | 1조     |      |
| 2리 마대, 먹읍실, 탑골, 능골 | 1    | 1  | 1조     |      |

－ 연령분포

| 구분<br>마을명          | 1-10 | 11-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
|--------------------|------|-------|-------|-------|-------|-------|-------|-------|--|
| 1리 양목골, 무학촌        | 18   | 36    | 18    | 22    | 38    | 23    | 25    | 15    |  |
| 2리 마대, 먹읍실, 탑골, 능골 | 16   | 21    | 18    | 20    | 23    | 20    | 23    | 19    |  |

－ 성씨분포

| 구분<br>마을명          | 김씨 | 이씨  | 홍씨  | 기타  |
|--------------------|----|-----|-----|-----|
| 1리 양목골, 무학촌        | 5% | 5%  | 9%  | 81% |
| 2리 마대, 먹읍실, 탑골, 능골 | 7% | 25% | 12% | 56% |

－ 학생분포

| 구분<br>마을명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
| 1리 양목골, 무학촌        | 9    | 5   | 11   | 3   |
| 2리 마대, 먹읍실, 탑골, 능골 | 9    | 5   | 3    | 4   |

－ 최고령자

1리 : 남자-85세 홍인식씨, 여자-임씨86세. 2리: 남자- 81세 이창선씨, 여자-90세 임임례씨

- 호당 평균소득

회룡리 1리는 년/2,000만원, 2리는 년/2,000만원

### 3) 자 연

회룡리 주위에는 다섯 봉우리가 있는데 이중에 제일 마지막 봉우리가 회룡리의 주봉이 되는 봉우리라 하여 마주봉이라 부른다. 특징은 신흥리에서 회룡리 사이에 있는 솔티고개와 팽개 바위가 있다. 약목골에는 마을 정류장에 섬티 느티나무가 있는데 수령은 180년 정도 되보인다. 그리고 마을에는 약 샘골이 있는데 마주봉 골짜기에 있다. 능골 앞에는 황산이 있고 능골 동쪽 앞에는 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문안들 이라고 부른다. 머겁실은 회룡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오동나무가 많이 있는게 특징이다.

### 4) 마을 변천과정

본래 온양군 동상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회룡고조 로 되었으므로 회룡리라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탐리, 오리, 무학리, 세출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아산군 배방면에 편입됨.

### 5) 입 향

1구는 무주 김씨가 처음 터를 잡고 살았는데 지금은 서너 집 밖에 살고 있지 않다.

회룡리 2구에 처음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성씨는 이씨 들이며 지금도 그 자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 6) 지명

·약물골(약목골-양목골) : 회룡리 동쪽에 있는 마을, 약물이 있었음. 동산면 시절의 약수등이 있었음

·익모-골 : 약물골

·마주봉 : 회룡리의 주봉이 되는 봉우리, 다섯봉우리가 있는데 마지막 봉우리가 됨

·약샘골 : 마주봉 밑에 있는 골짜기, 약샘이 있음

·절터골 : 마주봉 뒤에 있는 골짜기, 절터가 있음

·공기바위 : 마주봉 밑에 있는 큰 바위, 모양이 공기처럼 둥근데, 박장군이 공기 놀던 바위라 함.

·북바위 : 공기바위 옆에 있는 바위, 모양이 북과 같음

·장수발짝바위 : 공기 바위 아래에 있는 바위,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박장군의 발자국이라 한다.

·팽개바위 : 솔티고개 밑 논가운데 있는 큰바위, 박장군이 세교리에 있는 대성산성에서 팽개쳐서 이곳에 떨어진 것이라 함.

·황새바위 : 북바위 부근에 있는 바위, 모양이 황새와 같음

·말무덤 : 박장군무덤 부근에 있는 큰무덤, 박장군이 타던 말의 무덤이라 함.

·박장군무덤 : 머겁신 서쪽 뒷산에 있는 무덤, 큰무덤이 많이 퇴락되었는데 박장군의 무덤이라 함

·능골(능곡) : 탐골 너머에 있는 마을. 옛날 왕손이 세속을 떠나 절을 짓고 수양하다 죽은 후에 그 옆에 능을 썼다하여 붙여진 이름

·동살미 : 중뚝 동쪽에 있는 마을로 뒤에 동그란 작은 산이 있었다.

·마 대 : 머겁실 아래 북쪽에 있는 마을. 오동나무가 많이 있음.

·오 장 : 중뚝 북쪽에 있는 마을. 사창이 있었음

·웃 뚝 : 머겁실 위쪽의 마을

·중 뚝 : 머겁실 중앙에 있는 마을

·탐 골(탐동) : 머겁실 뒤 너머 골짜기에 있는 마을. 사충탐이 있고 절터가 남아있다.

·갈미봉 : 회룡리 뒤 태화산의 정봉

·황 산 : 능골 앞에 있는 산, 옛날에 관청이 있었다 하는데 초석이 남아 있다.

·가실구례 : 마대 앞에 있는 들

·모 장 : 중뚝 북쪽에 있는마을 사창이 있었음.

·술터리 : 신흥리의 술티고개

·이문안들 : 능골 동쪽 앞에 있는 들. 이문이 있었음

·소류지 : 회룡리 양목골 서남쪽에 있는 만수량 27천톤인 저수지

·사층탑 : 탑골에 있는 사층탑

## 7) 전설

### 회룡리 (회룡전설)

아산군 배방면 회룡리는 본래 온양군 동상면 지역으로서 지형이 회룡고조로 돼 있으므로 회룡리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회룡리에는 또다른 내력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그 내력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이었다. 이곳에 있는 마주봉 뒤 절터골에 있는 옛 절터에는 커다란 황룡이 한 마리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용은 하늘나라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잘못을 저질러 이세상으로 쫓겨난 용이었다. 용은 괴로운 일이었으나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이 세상으로 왔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시키는대로 살으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용은 이세상 아무곳에서나 살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절터에서만 살게되어 있었다. 그것도 3년간을 꼬박 이절터에서 살면서 아랫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절터에서 한발자국도 옮겨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3년간을 착실히 봉사하면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는 영영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용은 절터에 살면서 아랫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돌림병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했고, 가뭄이 들면 비가 내리도록 조화를 부려야 했다. 그뿐 아니라 마을에 불행이 닥치면 마을사람들보다 더 마음 죄어야했고, 마을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이 날은 별로 할 일없이 지내다가 해가 질무렵 갑자기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때 마침 세종대왕이 온양온천으로 눈병을 고치러 오던 길에 소나기를 만나 이곳에서 길을 잃어 지쳐 옷이 흠뻑 젖은채 어두운길을 걷고 있었다. 이를 본 황룡이 불쌍히 여겨 농부로 변신하여 그들의 길을 안내 해주었다. 이리하여 세종대왕은 온양온천에 무사히 도착하였지만 절터를 떠나서는 안된다는 계율을 어긴 황룡은 이무기가 되어 온천 가까이에 있는 용화리에 살게되었다. 한편, 세종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용을 위로하기 위하여 절터에 큰절을 짓도록 하였다. 이를 본 하늘나라 에서는 용의 죄를 사하여주어 이무기를 용으로 변하게 하여 마을을 지키게 하였다. 이처럼 용이 다시 돌아온 마을이라 하여 회룡리라 하였고 이웃마을은 후대에 용이 사람으로 환생하여 나라를 지켜달라는 뜻으로 세출리라 지었다.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병과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양에 왔고 그때마다 회룡리에 와서 병이 낫기를 기원했으나 3년이 지나 용이 하늘로 올라간 뒤부터는 효험이 나지 않은데다가 전란을 맞아 절은 불에 타버리고 주춧돌만 여기저기 남아있다. 이절은 맨처음 왕건의 스승인 도선이 세웠던 절이라고도 하나 확실한 증거는 없다.

### ·탑골

탑골은 회룡리의 북방에 위치한 마을로서, 약 500년 당시 왕손이 세속을 떠나 조금하게 절을 짓고 수양하였다고 한다. 그후 절의 흔적은 없고 탑만 보존되어 있는 마을이다 하여 탑골이라고 한다. 탑골에 있는 탑은 2~3m 정도의 사층 탑이다. 그 옆에는 왕손이.죽은후 모셨다고 하여 능골, 능이 있는곳이라 칭하고 있다.

### ·공기 바위

먼 옛날 외민족의 침입에 잠잠했던 이나라에는 애타는 함성이 번져 나갔다. 그 당시 아산군 배방면 회룡리 마을에는 박지용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고 시신만 고향에 돌아왔다. 박지용의 집에는 늙은 홀 어머니와 갓 혼인한 부인만이 어려운 살림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부인은 늙으신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시고 슬픔을 잊고 일어섰다.

그후 전쟁도 한창일 때 부인은 유복자를 낳았다. 부인은 항상 남편의 애국적인 죽음을 애도하며 어린 아들에게 침입자들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기를 기대하며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이런 어머니의 기대에 순응하듯 어린 아들은 남다른 행동을 보이며 자랐다. 3살때는 보통 글을 다 알았으며 어머니에겐 원을 풀어주겠노라고 위로까지 했다. 그 마을 뒤에는 마주 봉이라는 산봉우리 가 있는데 꼬마는 남몰래 마주봉에 올라가 뜻을 굳혔다 그가 위용을 필때마다 천지가 뒤흔들릴 것 같은 우레가 비쳤다. 싸움이 계속되는 어느날 그 마을에도 침입자들의 발길이 머물게 되었다. 침입자들의 온갖 탈취와 행패가 거듭될대 마주봉에서 거센 함성과 함께 많은 꼬마 병정들이 온 산을 휘감아 덮어 버렸다. 물론 꼬마가 어디서 솟아났는지는 모르나 위엄있는 훈계와 공기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이에 침입자들은 겁에 질려 그들의 죄를 빌며 불행량을 쳐 다시는 그 마을 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후 꼬마가 가지고 공기놀이를 했던 바위가 오늘날 마주봉 산 밑에 남아 있어 공기바위라 불리고 있다.

#### ·북바위

북바위는 공기바위 옆에있는 바위로 모양이 북처럼 생겼다하여 북바위라고 하는데 회룡리에 북만을 만들며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다. 일생 좋은 북을 만들기 위해 좋은 소를 찾아 다니며 하고 하루종일 북을 만들때도 있으며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든 북은 함부러 팔려하지 않았다. 그의 소원이 있다면 자기가 만든 북이 뜻있는 일에 쓰이기를 바랐다. 그 노인은 죽기전에 보람있게 쓰여질 북을 만들고 싶어했다. 그러나 몇번을 만들어도 원하는 소리가 나지않자 낙담한 노인은 부처님께 빌기 시작했다. 그런 지성 드리기가 백일이 되던날 불상앞에서 잠든 노인이 꿈을 꾸었는데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 하는 말이 절터 아래에 있는 냇물가에 비루먹은 송아지가 있는데 그놈을 일년하고 열흘만 고이 키워서 그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다. 놀라겐 노인은 몇번씩 절을 하고 그 송아지를 잘 키워서 일년하고 열흘이 되는 날 그 소를잡아 북으로 만들었는데 소리가 그렇게 낭랑하고 우렁찰수가 없었다. 한껏 만족하여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한 노인은 이북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생각다 못한 노인은 마을 어귀에 그 북을 걸어놓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때만 손수 그북을 울려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임진난이 일어나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왜병에 의해 한양이 함락됐다는 소문이 돌리고 그래서 어서 피난을 알리는 북을 치려니 원통하여 자기 손으로 북을 찢어버리고 자기 목숨도 끊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란이 끝나 던 해에 그 찢어진 북에서 승전을 알리는 북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고 한다. 그후로 그 북은 다시는 울리지 않았다. 그후 북은 바위로 변했다고 한다.

#### ·황새바위

황새바위는 북바위 부근에 있다.

옛날 사냥을 좋아하던 한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딸은 없고 그를 닮은 아들만 셋 있었다.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을 원했지만 소식이 없자 화가나 사냥을 나갔다. 그때 마침 소나무 밑에서 알을 낳고 있는 황새를 본 사냥꾼은 쓸모도 없는 황새를 쏘아 죽여버렸다. 그후 그의 아내는 하얀 황새 한 마리가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후 예쁜 계집아이를 낳았다. 그러던 어느날 정정하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다. 이상한일은 아버지의 목에 무언가로 찍힌듯한 자국이 있었다. 그후 어머니와 셋째아들까지 같은 방법으로 죽게 되었다. 큰형은 이상히 생각하여 절에 스님을 찾아갔다. 그러자 스님은 원한을 품은 황새가 딸로 태어났다고 했다. 동생을 구하는 방법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밤 파란 약병을 던지라고 하였다. 암자에서 내려간 첫째는 추운 겨울밤 여동생을 찾아가 파란 약병을 던졌다. 그러자 파란병에서 독수리가 나와 황새와 싸우다가 황새와 독수리가 모두 죽게되었다. 아들은 황새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는데 그후 그곳에 황새모양의 바위가 생겼다고 한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약목골 에서는 음력 정월 초나흘날에 산신제를 지내는데 초상이나 부정이 있으면 날을 미룬다고 한다. 마을 행사로는 정월에 동민의 날을 정하여 산제 음식으로 윷놀이를 하고 청년회와 부녀회 에서 주관하여 경로잔치를 한다.

####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이 마을에서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 10) 종교현황

회룡리에는 옥천암이라는 암자가 있으며 인근의 세출리나 타지역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

11) 공장현황

(주) 시스하이텍 : 회룡 10-2, 생산품 - 고전압 발생장치

충 무 정 밀(주) : 회룡 476-1, 생산품 - 안테나, 확성기

12) 마을의 특성

회룡리의 특수 작물로는 오이, 배추, 냉쿨콩, 포도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부농 마을이다.